

---

# 발 간 사



이오영 총 회장

모든 분들의 축하에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취임하던 때도 잠시 「미주 총연을 200만 미주 한인사회 구심 대표 단체」로 자리매김 해야겠다는 소명 의식으로, 그리고 떳떳한 선배의 상을 남겨야 한다는 초조감에 보낸 시간 돌아보니 어언 2년-.

제19대 4대 지표를 다음과 같이 세우고

1. 민족 공동체 구심화를 위한
  - 지역 한인회와 Network 구축
  - 위상 제고
2. 미래 지향적 개혁
3. 주류 사회 진입으로 한미 양국 교량 역할
4. 자립 재정 확립

시행 착오도 인정하지만, 국내·외적으로 바쁘게 뛰던 일들을 이 책 안쪽에 나열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개혁과 발전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함으로 연임의 제의를 사양하고, 많은 임원·이사·중앙 상임위원님들의 열정 어린 협조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19대에서 실행한 일들이 먼 훗날, 후배들의 사업 추진에 하나의 지표가 되어주기 바라는 야무진 기대를 하면서, 임기를 마치며 총연의 위상 제고와 행정체제 확립이란 미명 아래 나를 보조하는 Ms. Kim과 Mr. 정, 그리고 애꿎은 아내를 혹사하던 기억들이 미안함 되어 주마등같이 지나갑니다.

고문, 자문위원, 제19대 이준성 이사장, 박현우 사무총장, 그리고 모든 임원들과 이사들께 감사를 보냅니다.

모두 19대란 제한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소속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실 선배 그리고 동지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20년간 젊음을 바쳤던 아쉬움과 미련의 한쪽을 가감 없이 이 책에 담아 역사 자료로 남겨 두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6월

제19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오영

---